

교회 소식

1. 2/4분기 정기 제직회: 오늘 주일2부예배 후, 본당

2. Youth Summer Retreat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날자: 7/30(주) ~ 8/1(화)

장소: Covenant Harbor

1724 W Main St, Lake Geneva, WI 53147

문의: 김영목 목사

3. 선교회 모임 6/4 (주일)

4. 기관장 모임 6/11 (주일)

5. 야외예배 (6/25)

주일예배 [빌립보서 강해] 시리즈 설교 계획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 3:1) 5/28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빌 4:1-3) 6/4

염려와 기도 사이 (빌 4:4-7) 6/11

자족하는 삶 (빌 4:10-23) 6/18

교회 Youtube 채널 QR 코드

오른쪽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서
코너스톤 장로 교회 Youtube 웹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소개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예배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본당)
 새벽 예배 화~토 오전 6시 (본당)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7시 50분 (본당)
 EM 예배 주일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실)
 어린이 예배 주일 오전 11시 (어린이부 예배실)

코너스톤 양육과정

새가족반 (4주 or 7주)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실존적 필요를 위한 과정	수시개강
정착반 (5주 or 10주)	신앙생활의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길 원하는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	수시개강
기초반 (12주)	하나님나라 복음에 기초한 균형 있는 삶의 토대를 배우고 익히는 일대일양육교육	수시개강
제자반 (20주)	하나님나라를 살아내고 다른 한 사람에게 하나님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일을 위한 일대일제자훈련	상,하반기 1차례 (1월, 8월 개강)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영목 교육전도사 김지선, Sagar Mekwan
시무장로 이현진, 김소림 휴무장로 전진홍 협동장로 김병국

오시는 길



33428 N. Sears Blvd. Grayslake, IL 60030
T. 224-541-4359 | www.thececc.com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

코너스톤교회

미국장로교 PCA

말씀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삼아
하나님나라 세위가는 성령의 공동체



지난주 (5월 14일) 헌금 통계 (\$2,222.00)

1부 예배 (EM) | 2부 예배 (KM)

Invocation (John 4:24)	예배부름 (요한복음 4:24)
Worship	경배찬양
● Praise “Blessed the Lord”	● 영 광 송 “송축해 내 영혼”
●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Prayer	대표기도 김병기 집사
Announcements	교회소식
Bible Reading Philippians 3:1	성경봉독 빌립보서 3장 1절
Offering Prayer	봉헌기도

Message
“Rejoice in the Lord”

- Praise
“Way Maker”
- Benediction

말씀강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 결 단 송
“나의 안에 거하라”
- 축 도

● 표에서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Please Stand)

1) The first of the nine fruits of the Holy Spirit is love, and the second fruit that appears is 'joy', that is, happiness. A life full of joy is a lif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 life overflowing with joy is precisely the life that God desires for us.

2) If we were to simplify the theme of the Epistle to the Philippians into a single word, it would be 'joy.' The Apostle Paul used the word 'joy' as many as nine times in this short letter, which is only four chapters long.

3) However, as we read this letter, we want to question the Apostle Paul. "Can someone in a situation like mine truly be joyful? How good must have the circumstances and environment of Apostle Paul been for him to confidently say 'Rejoice' as many as nine times?"

4) Paul was imprisoned in a Roman jail. He was living as a prisoner, bearing an unjust stigma. In the twilight years of such a life, he was spending each day without hope, not knowing when he might be released from prison. He was struggling to take care of himself and occasionally received consolation goods sent by the saints of the church. So, how on earth could Apostle Paul be joyful amidst such extreme loneliness and in such harsh conditions?

5) The world thinks that those who have much and those who are powerful can be happy. However, Apostle Paul not only had nothing, but also seemed to have lost everything, yet he discovered 'the secret of being able to rejoice' even in such a situation.

6) "(Phil 3:1) Finally, my brothers, rejoice in the Lord..." Who do we rejoice in? We rejoice "in the Lord". The expression that Apostle Paul used most frequently when writing letters is 'in the Lord.' What is the first condition for us to be able to rejoice beyond situations and environments? It is to rejoice 'in the Lord.'

7) A mature Christian can pray with gratitude even in the midst of hardship. Because they are sure that God is the one who oversees history, they can pray with joy and thankfulness even in crisis situations where their life is unpredictable.

8) "Rejoice always...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Jesus." (1 Thessalonians 5:16-18) No matter how difficult and hopeless our current situation and environment may seem, we can rejoice "in the Lord" because of the Lord and because the Lord is with us.

1)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고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2번째 열매가 '희락' 즉 기쁨(Joy)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삶이 바로 성령충만한 삶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2) 빌립보서의 주제를 단 한 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4장 밖에 안되는 이 짧은 편지에 '기쁨'이란 단어를 무려 9번이나 사용했습니다.

3) 그러나 이 편지를 읽는 우리는 바울 사도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나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얼마나 좋은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었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기뻐하라”고 무려 9번이나 말할 수 있었을까요?

4)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체포되어 있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분으로 옥살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노년에 언제 감옥에서 풀려날지도 모르는 상태로 기약 없는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던 것입니다. 스스로 생활하기도 어려워서 교회 성도들이 이따금씩 보내주는 위문품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극심한 외로움과 극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5) 세상은 많이 가진 자, 힘이 있는 자 자가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6) “(빌 3:1)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누구 안에서 기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사용한 표현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7)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도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확신하기에 자신의 생명이 오락가락 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8) “항상 기뻐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오늘 직면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겹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